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1

1999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에베소서, 사무엘하
추수감사절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1

1999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에베소서, 사무엘하
추수감사절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김창인 원로목사님, 김성관 위임목사님, 남녀 교역자들, 당회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이 맡은 바 섬김의 도를 다하게 하소서.
7.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감 사



감사의 계절입니다. 홍수와 태풍의 재난을 뚫고서도 은총의 햇빛은 변함없이 우리 위에 비추어 졌습니다. 풍성한 곡식과 열매들이 사방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난 여름, 재난으로 신음하는 가까운 이웃들과 멀리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의 작은 손길로 사랑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충현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백성들로 일어서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물론, 복잡 다난한 세상에서 범사에 감사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믿음으로 감사하게 될 때에 그것은 은총의 통로요 평강으로 인도하는 창문이 될 것입니다. 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불평과 원망은 우리들을 해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해악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과 입술을 감사로 가득 채우셔서 온 교회가 감사와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선한 도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999년 11월

위임목사 김 성 관

충현의 만나

1999년 11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에베소서 서론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다. 에베소서는 기독교 구원과 교회에 관한 대서사시라고 불릴 만큼 여러 서신들 중에서 교리적 진술을 매우 완벽하게 전개하고있다. 죄로 말미암아 만물이 부조화하게 되었으나 이 모든 부조화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구속함을 입은 성도가 최악이 가득한 세상에 섞여서 살아도, 그리고 반대로 세상을 아주 도외시 하고 체념으로만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세상에서의 천국시민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매일 매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믿음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에베소서는 회람용 서신으로서 단지 에베소 뿐만 아니라 에베소 인근의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도 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1:13, 2:5-9, 3:12).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 하심으로 만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전에 이루시며(1:1), 하나님과의 화해와 하나님 백성들간의 화해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

케 이루어지며(2장),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선포를 위한 기구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교회의 통일(1:10, 2:13-16, 4:4-6)이야 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에베소서를 골로새서와 비교할 때 상당 부분 유사한점들이 발견 되는데, 물론 이곳에서도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구원이다. 물론 성도는 구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1:13, 14)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 입고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

내용 흐름

제1부 / 성도의 지위 1:1-3:21

1. 구속에 대한 찬양(1:1-14)
2. 계시를 구하는 기도(1:15-23)
3. 성도의 지위(2:1-3:13)
4.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3:14-21)

제2부 / 성도의 생활 4:1-6:24

1. 교회의 통일성(4:1-16)
2. 성결한 삶(4:17-5:21)
3. 가정 생활의 의무(5:22-6:9)
4. 성도의 싸움(6:10-24)

1

(월) 그리스도의 비밀

찬송 / 205장 본문 / 엡 3:1-7

L 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중,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현 듯 주제를 바꾸어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한참 나누다가 갑자기 생각난 매우 중요한 일로 인해 대화의 주제를 갑자기 바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사이에 바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편을 말하려다가 갑자기 생각난 진리, 곧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말할 필요를 강하게 느끼고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따라서 1절과 2절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바울이 빨리 말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가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바울의 서신을 읽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 비밀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마다, 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아름다운 흥분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내가 오늘도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 베풀어진 이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비밀의 기쁨속에서 선한 흥분과 자부심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나는 평범해도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게되었을 때, 자신이 답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영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창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통 혹은 교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기도대로 제대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드리는 기도는 내가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생각에 걸맞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가? 많은 사람이 자기가 최소한 알고 있는 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상투적인 인사말과 내 필요를 요청하는 것으로 구성된 기도를 말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14-21절) 그는 자기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14-15절). 그는 철저하게 근본적인 내용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 믿음과 사랑으로 자라게 하시기,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닮기 16-19절). 그는 찬양으로 기도를 마칩니다(20-21절). 비록 대단히 짧은 기도이지만 그의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의 근본적인 필요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그리고 기도가 또 다른 찬양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내 자신과 가족, 내가 기도하는 대상들을 위해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기도는 예수님 닮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예수님의 자취를 쫓아가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는 때로 장난스럽게, 별 목적없이 누군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너무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에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은 우리 편에서는 '소명'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1절)고 명령합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대하여 그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 하나되기를 힘쓰는 것' 등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서 꼭 기억해야할 것은 나에게 주신 분량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7절). 하나님께서는 많이 주셨는데 아무 것도 안받은 것 처럼 행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자기의 영역이 아닌 남의 것을 넘보는 것도 곤란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직분과 은사의 분량에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12절).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함께 부름받은 지체들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사랑과 진리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지역감정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 사람 그 못된 성격은 하나님도 감당 못하실 거야” 등 우리들은 이런 류의 말을 가끔 듣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더라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옛 본성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도무지 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 자체가 우리들의 영적 패배주의를 부채질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피로 우리를 새 피조물로 재창조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현실적인 현상을 마치 숙명적인 것인양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성령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놀랍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이제 소속이 바뀐 존재들임을 상기시키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고합니다. 옛 사람에 속한 것들은 거짓과 분노와 도적질과 더러운 말과 악독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 음행 등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심령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23절). 곧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도록 나를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탐욕의 소리에 귀를 막고, 성령의 소멸치 않도록 그 분의 불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하고 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성령이여, 오늘도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② 충현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5

(금) 새 사람을 입으세요

찬송 / 358장 본문 / 엡 5:1-20

우리는 빛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빛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8절).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주위의 어둠을 벗겨내며 그 삶으로 그것들을 빛으로 바꾸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전히 어둠(음행과 거짓과 악독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회롱의 말 등)이 가득하다면 그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빛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대충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필 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영원한 천국에서는 시간을 아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을 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따라서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깊은 기도 중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지혜롭게 사는 법’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둔 세상 지날 때 햇빛되게 하소서.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요즘엔 남자들이 여자들앞에서 기를 못퍼고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가부장적인 전통을 따라 가정을 꾸려가는 남성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부부 서로에게 요구되는 성경적인 원칙은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21절). 그런데,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각자가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못하면 결코 피차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전제로 하여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거룩하고 순결하게 순종해야 하듯이 아내들은 범사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사랑의 법칙'을 따라 아내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몸의 요구에 복종하여 살아가듯,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주셨듯이 이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므로, 아내의 원하는 바를 주님안에서 인정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의 복종'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힘든 아내나 남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감정보다는 '책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책임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친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랑으로 피차 복종하는 부부를 책임지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내 고집과 욕심을 꺾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7

(주일) 관계

찬송 / 369장 본문 / 엡 6:1-9

우리들의 고민과 기쁨, 스트레스와 회열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부부관계, 직장동료 혹은 상사 및 부하직원과의 관계, 이성관계, 자녀 및 부모와의 관계, 가족 및 친족 간의 관계 등 얽히고 설킨 관계로 인해 우리는 안정감과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깊은 좌절과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형편에 대하여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미묘한 관계의 문제를 다루시되, 매우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다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모든 관계의 주인이심을 선언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역시 명쾌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공연히 옥박지르고, 이해해 주지 못하므로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부모는 청지기에 불과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책임은 상당부분 그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가장 크고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과 종(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도 명쾌합니다. 피고용주는 고용주에게 신실하되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 눈가림만 하면 안됩니다. 고용주는 협박과 공갈을 그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고용주들을 대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그 분께 여쭙어 보아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어그러진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그리스도인은 어찌보면 무장해제 된 자입니다. 내 고집과 자존심, 자신을 책임지려는 욕망, 성공병, 쾌락으로 달려가는 탐욕 등 모든 옛 본성들을 다 버리고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선언과 함께 온 몸에서 힘을 빼고 두 손을 드는 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무기를 지급받아 든든하게 무장해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된 정병으로서 사단이 마지막 저항을 펼치고 있는 전장에 나가 거대한 영적전투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는 방어용 무기도 있어야 하고 공격용 무기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무기는 '진리'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먼저 이 허리띠를 든든히 동여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으로 투구를 쓰고, 사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광야에서 미혹하는 말로 공격해온 사단을 예수님은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 모든 무기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18절)고 권면합니다. 이제 든든히 무장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기들로 무장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저를 하나님을 위해 충성으로 싸우는 좋은 군사로 세워 주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 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세 명의 후보를 머리 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서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을 골라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가 변사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본문은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장본인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도록 괴롭히던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패재를 부르며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의 죽음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직접 대항하지 않고도 이스라엘의 권좌에 오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불행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옷을 잡아 찢으며 종일 슬퍼하고 울며 금식했습니다(11, 12절). 그리고 자신에게 혹 상을 받을까 하여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왕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아말렉 소년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원수나 닮은 없는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명단을 머리 속에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 명단을 ‘기도해 주는 사람’의 명단으로 바꾸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과 가장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슬픔을 애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의 사람들에게 이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면서 슬픔을 맞이합니다. 그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슬픔을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애가를 보면, 우리가 슬픔을 나눌 때 기억해야 할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애가에는 사울의 나쁜 행동은 빠져 있고 오직 선한 행동만 나열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중오하며 죽이려고 한 사울의 과거의 일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울의 좋은 점들을 기억하며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을 나눌 때 분노나 원한에 찬 나눔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에 찬 나눔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다윗의 애가에는 “오호라 두 용사가 엮드러졌도다”라는 중심 구절이 세 번 반복되는데(19, 25, 27절), 그의 애도가 깊은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그는 자기를 사랑한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을 깊이 기억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사랑을 쏟았던 곳에서 가장 큰 슬픔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자가 됩시다(롬 12:15)

▶ 기도 제목 / ① 슬픔 속에 있을 때 슬픔을 남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슬픔을 당한 자가 있을 때 같이 슬픔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최선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라!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최선의(best)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최선의 삶을 살려면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살아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이제 사울은 죽고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왕이 필요하며, 다윗은 이 시점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한마디로 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조용한 곳으로 가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그렇듯이, 장고(長考)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단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뜻을 물었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 기도 제목 / 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간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12)고 말하면서, 이러한 마귀의 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원수 마귀를 무찌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 두 나라의 싸움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간의 싸움을 통해서 말합니다. 과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을 규합하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8, 9절). 결국 이러한 인간적 처사는 다윗을 왕으로 삼은 유다 군대와 피할 수 없는 충돌을 낳게 됩니다. 처음에 24명의 대표 용사들의 시합으로 시작된 전투는 흥분이 고조되면서 매우 맹렬한 전투가 되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사울 왕가의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윗 왕가의 유다 군사들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세상 세력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의 삶을 삽시다.

▶ 기도 제목 / 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이들과 여러 모양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갚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선을 악으로 갚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악을 선으로 갚는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당연히 셋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21).

그런데 다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평화의 원리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롬 12:18). 평화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기본되는 원리입니다. 본문은 화목의 원리를 망각한 한 젊은이의 어리석은 행동과 비참한 최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승리로 끝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투장에는 스루야의 세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발이 들노루처럼 빠른 아사헬이 달아나는 사울의 군대 장군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자기 대신 다른 이를 쫓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아사헬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브넬은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라고 하며 재차 그만 따라오도록 설득합니다. 그러나 아사헬은 막무가내입니다. 결국 아브넬은 설득을 포기하고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아사헬은 승리만 알았지 평화를 모르는 젊은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피를 흘리는 승리에 있지 않고 화평에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피를 흘리기보다는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다스리시며 운영하십니다. 이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통념이나 생각과는 무척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에서 대신 야곱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의 후계자로 이미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 왕가에 맞추어져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니라.” 다윗은 점점 강하여집니다. 2-5절에 소개된 다윗의 여섯 부인과 여섯 아들의 이름은 당시 다윗 왕가가 크게 번성하고 있음을 증거 하며, 특히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와의 결혼 기사는 다윗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을 시사해 줍니다(3절). 이는 다윗을 통해 그분의 다스리심을 이루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갑니다.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은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왕위를 노려 사울의 첩을 아내로 취하는데, 이 일로 인해 이스보셋의 책망을 받자 다윗 왕가로 전향할 의사를 강하게 보입니다(9절). 결국 사울의 집은 붕괴 일보 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인식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거짓과 술수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옷 로비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성경책 위에 진실을 말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의 안일을 위해 거짓을 말합니다. 진실은 현실 앞에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진실이 얼마나 위력 있는지를 진실한 정치가 다윗을 통해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평화 협상을 통해 통일 왕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군대 장관인 요압이 동생 아사헬에 대한 복수로 아브넬을 살해함으로써 자신의 소망을 무산시킬 위기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과 함께 다윗 왕가에 전향하기로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으로 오해하고 반기를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피살 소식을 접하자 요압을 저주하고(29절), 아브넬의 죽음을 온 백성들과 더불어 심히 애통해 하면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릅니다(31절). 뿐만 아니라 친히 애가를 지어 애도를 표할 뿐 아니라 아브넬을 장사하는 하루 동안 전혀 음식을 들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지극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진실한 자세는 백성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온 백성들의 신임을 더욱 두텁게 했고, 결국 다윗의 성실하고 현명한 수습은 이스라엘의 통일 과정을 다시 순조롭게 하였습니다(36, 37절).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진실한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중교개혁이 오늘날 우리에게 물려준 위대한 유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역사 속에서 그분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스보셋의 암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본문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기소침해진 이스보셋의 나약한 모습과 이 기회를 틈타 출세해 보려는 군장 레갑과 바야나의 이스보셋 암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보다는 인간 아브넬을 의지한 이스보셋의 어리석음과, 왕의 신복으로서 왕의 녹을 먹으며 왕의 은혜를 입은 군대 장관들이 출세에 눈이 어두워 자신들이 섬겨오던 왕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 목을 베어 다윗에게 가서 아첨하는 배신적인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에게 그의 후손을 끊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삼상 24:21, 22).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직접 사울 왕가를 멸하지 않고서도 통일 왕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기회주의자들의 손을 빌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삶을 삽시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게 하시고 그 섭리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계 획하는 일이 잘 풀려갈 때 교만해집니다. 또한 일이 잘 안풀려지면 짜증을 내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윗은 충성하겠다는 온 백성의 맹세 가운데 왕으로 즉위하여 40년을 다스립니다(1-5절). 왕이 된 다윗은 여부스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6-10절). 그래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6-10절). 두로 왕 히람도 다윗의 예루살렘 성곽 건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11-12절). 이러한 와중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13-16절).

다윗이 왕이 되고, 헤브론을 축출하고 시온성을 회복하며,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은 다윗을 세우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느끼게 합니다. 다윗이 흥왕하는 본문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라는 단어입니다(2, 10, 12절). 당신의 생애를 강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일이 잘 풀려가는 것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도, 가정이 평안을 누리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 뒤에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숨어 있는 힘을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오늘도 하는 일, 만나는 사람, 계획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하루 하루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고, 우리가 막상 대처한다고 할지라도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할 생각하지 않고, 불평과 낙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를 견제하는 세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이 다윗 앞에 등장합니다. 블레셋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도전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저앉지 않고, 다시 2차 침공을 감행합니다(22절). 이것이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한 번 공격한 후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이러한 집요한 대적 앞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19, 23절). 다윗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작전은 여호와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호와께 묻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때때로 그 응답이라는 것이 “허무맹랑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23-24절). 그러나 그것이 최대의 응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25절). 오늘도 당신이 걸어가는 삶의 현장은 그리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님께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주님께 물으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앞서 싸우시는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②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기쁨 가운데서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1-5절). 그러나 뜻하지 않게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옷사가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두려운 마음에 궤를 "오벵에돔의 집"으로 옮겨 놓았습니다(6-11절). 언약궤를 모신 오벵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3개월 후에 추진된 이번의 시도는 "율법의 절차"를 따라 진행되었습니다(12-15절, 민 4:15-16).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에 안치한 것은 온 예루살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기쁨에 겨워 춤을 추었으나 미갈은 그것을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체통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어린아이와 같은 기쁨과 미갈의 체면 사이에서 우리는 다윗의 아름다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통과 바벨탑보다 '주를 기뻐함'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거룩한 일을 핑계삼아 나의 바벨탑을 쌓지 않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신학교 사역과 한인교회, 현지인 개척교회 사역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찬송 / 308, 352장 본문 / 삼하 7:1-29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는 자기 욕심에만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교할 때 매우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언약케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윗에게(6장) 이제 그것을 안치할 수 있는 성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생깁니다(7장). 우리는 흔히 “나에 대해서는 화려한 치장”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궁색”한 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아직 성전 건축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계시합니다.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집을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는 다윗언약을 주셨습니다(8-17절). 다윗은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18-29절).

우리는 “거룩한 비전과 열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이 언약케를 모실 성전 건축을 열망했듯이 우리는 “참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집으로 건축되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걸어갑시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거룩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비전과 열망을 주소서. ② 안식월 선교사(수리남)가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어 수리남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찬송 / 307, 497장 본문 / 삼하 8:1-18

요사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중 승리의 삶을 사는 이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다윗 때에 증명되었고(창 15:18), 7장에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왕국”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8장에서는 그것을 성취하는 것처럼 나타냅니다. 다윗은 국외적으로 서쪽의 블레셋, 동쪽의 모압, 북쪽의 소바와 다메섹 그리고 하맛, 남쪽의 에돔 등을 정복하고 명실상부한 다윗왕국을 확장시켜가고 있습니다(1-18절). 다윗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국내적으로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그는 행정조직을 전문화시킵니다. 그의 통치는 “공과 의로서 행했다”고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왕권을 수행하는 대리자로서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을 바로 통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정복전쟁은 하나님 왕국의 확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당연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라고 결론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6, 14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감사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지난 1년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②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소서. ③ 김영대 선교사(수단)가 담당하는 학교, 교회,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 현지인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표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벌레만도 못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왕 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다윗은 웅맹스러운 자였으나 또한 매우 긍휼이 풍부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시바를 시켜서 사울의 가문에 “남은 자”가 있는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시바는 “사울의 손자 절뚝발이 므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므비보셋은 두려움으로 다윗 앞에 서게 되었는데 의외로 다윗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므비보셋은 “무엇이관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왕자 중 하나”처럼 대우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삼하 20:15-17).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인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자 중 하나”와 같이 선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거만하게 살 것이 아니라, 단지 감사하면서 살 뿐입니다. 오늘도 불평하지 말고 “절뚝발이와 같은 나를 주님의 상에서 은총을 먹을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죽은 개를 왕자처럼 여기십니다.

▶ 기도 제목 /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 주옵소서. ② 정은희 선교사(케냐)가 사역지에 잘 적응하여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인도네시아의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요사이 다국적군이 동티모르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쉽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끊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서 있습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습니다.

8장에 이어서 다윗의 정복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조문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그 아들 “하눈”은 신하들의 충동질을 거절하지 못하고 오해하여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들에게 수치를 보였습니다(1-5절). 다윗의 미움을 사는 행동을 한 하눈은 스스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치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하여 다윗에게 도전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6-14절). 이 전쟁은 2차(15-19절), 3차(11:1)에 걸쳐서 계속되어 집니다. 1차 전쟁에서는 특수정에 부대로 싸웠으나(9절), 2차 전쟁 때에는 다윗이 친히 선두에 서서 국민들 가운데 연합군대를 형성하여 전쟁을 치루게 됩니다(17절). 결국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나고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드리기로 약조를 맺었습니다.

어두움의 세력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도전해 옵니다. 영적 전쟁을 치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움의 세력을 향해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어두움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한국의 영적인 흐름을 인하여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 기도 제목 / 어두움과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의 원주민 선교가 주님의 뜻 안에서 계속 열매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가운데 누가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시험과 유혹에 휘말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하는 그 사람이 어찌면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와의 동침으로 인한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가한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보내지 않고, 자신의 정욕에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1-5절까지는 밋세바와의 성적인 범죄를 고발하고 있으며, 6-13절에서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간사한 계교를 꾸미는 다윗의 추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는 “걸잡을 수 없는 연결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다가 더 추한 범죄의 수렁으로 말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던 다윗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시점은 “섰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때입니다. “한가한 시간”을 주님과과의 교제로 활용하지 못할 때 위대한 성군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야 합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순간 순간을 주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 교회와도 잘 협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사람이 한 번 거짓말 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은 한이 없이 불어나게 됩니다. 이전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 거짓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으로부터 빠져 나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그 문제점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거짓과 죄악을 범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시험에 고스란히 자신을 제물로 바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와의 부끄러운 일을 감추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의 최일선에 내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군대 장관인 요압과 공모해서 일부러 후퇴함으로 의도적으로 살인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16-21절). 다윗의 이 행위는 죄에 죄를 더하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부음을 받았던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도 가슴 아파했던(삼상 24:5)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인물도 처음에는 미력에 불과했던 죄악의 힘에 이끌리어서 더 큰 죄악을 더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죄의 속성(약 1:15)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약한가를 여실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로 하여금 틈탈 기회를 차단해야 합니다(살전 5:22).

죄의 소원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과 문맹 퇴치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만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 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기가 힘듭니다. 그런 까닭에 자꾸 사람들 앞에서 외식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 일반인들에게서는 발견하기 힘든 겸손과 회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일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았습니다. 선지자는 비유를 통해서 왕 다윗의 죄악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죄악의 결과를 보여 주었습니다(14, 15절). 아마 생사의 결정권을 가진 왕 앞에서 왕의 죄악을 책망하는 일도 힘든 일 일텐데, 그 결과를 선포하는 일은 사역자인 나단으로서도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7절)는 나단의 질책을 받았을 때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13절)고 거꾸러졌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밧새바와 관련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시 51:17)으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다윗을 받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행위도 밝히 드러나 보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자신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불드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소서. ② 허요셉 평신도선교사(이집트)가 진행하는 회교권 선교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회개라는 말은 두 가지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잘못에 대해 뉘우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감정적인 면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문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둘째 단계인 고치고 돌아서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감정적으로 잘못된 것을 깨닫는 데서 그치고, 또다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것이 잘못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데는 그것에 수반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의 일로 잉태했던 아들이 자신의 죄악의 연고로 희생되었습니다. 다윗으로는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겸손히 수용합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위로가 따랐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솔로몬의 출생입니다. 이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아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뜻(25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 족속의 왕성인 랍바를 함락시키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7:11) 그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식언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민 23:19).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언약에 관해서도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성령의 감화로 죄악을 깨닫게 주옵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통일일의 그날도 하루 속히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일 것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물론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선포받았지만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은 계속됩니다. 그 보응은 자신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첫 아들인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하여 범죄한 일입니다(7-14절). 이것은 방법에 있어서 조차도 그의 아버지 다윗이 밋새바에게 행한 일을 흡사하게 빼어 닮았습니다. 암논은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섰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조언자인 요나답의 간계로 말미암아(3-6절)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고 말았습니다(전 2:3-22). 암논은 다윗의 장자로서(3:2절) 고대 근동의 관례를 따르면 왕위 계승의 서열상 제1순위였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근친상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레 20:13, 15-17)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욕에 미혹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에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시 119:9).

오늘도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 주소서. ② 농어촌교회들을 통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녀들간의 엄청난 죄악들을 목도했어야만 했습니다. 암논의 이복동생인 다말은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친동생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에게 행한 일을 듣고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 암논을 죽일 기회를 엿보아 기다리다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온 형제들을 불러모아 잔치를 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압살롬이 계획한 대로 암논은 동생의 잔치 집에서 시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30절). 이것은 “칼이 네 집에서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12:10)고 했던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압살롬이 택한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이 택할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암논의 일이 악한 일이었지만 행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달렸으므로 그 모든 선악간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롬 12:19). 압살롬과 같은 일을 당했다면 분노하지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를 처리하는 방식이 압살롬과 같이 죄에 죄악을 더하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죄악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훗날 아버지에게 대한 반역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윗 자신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분노하기는 하되 해가 지기까지는 품지 말아야(엡 4:26)하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마십시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명한 언약을 범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 이후 인간들은 죄악을 범하고 나서는 피하여 숨는 행위를 하여 왔습니다. 압살롬도 암논을 비롯한 많은 왕자들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피하여 그 술로 도망하였습니다(13:34). 근심에 찬 다윗을 보다 못한 요압이 드고아의 한 슬기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다윗 앞에 세우고, 압살롬의 근황을 전하게 합니다(3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하여금 아들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할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9절). 드고아 여인의 호소는 이전 나단 선지자의 비유(12:1-6)와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 한 후에 다윗이 자신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자(10, 11절), 다윗이 근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압살롬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여인의 비유는 다윗의 양심에 호소하기보다는 다윗의 감정에 호소를 하고 있고, 요압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인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진리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라고 간구했던 주님의 본을 받아,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있는 마귀(벧전 5:8)의 꾀계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릅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② 시간의 주인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99년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활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서문

예레미야(확실한 것은 아니나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기초를 높이신다'는 뜻인 듯함)는 일찍이 제사장들의 도시 아나돗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주전 587년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수십년 동안(요시아,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시대를 거치면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시기는 엄청난 정치적 변혁의 폭풍이 몰아치던 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과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백성들은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거나 멸시했고 하나님은 힘에 겨울 정도의 매우 독특한 예언자의 삶을 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는 곤경에 처한 자신의 아픈 마음을 솔직하게 자주 쏟아내곤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자기 백성과 새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희망 어린 미래도 전했습니다. 이 새언약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됩니다(고전 11:25, 히 7-10장).

예레미야서의 주요 내용

예레미야를 부르심(1:1-19)

유다에 대한 예언들(2:1-45:5)

유다에 대한 비난(2:1-25:38)

: 열두번에 걸친 예레미야의 설교

예레미야의 갈등(26:1-29:32)

미래에 회복될 예루살렘(30:1-33:26)

유다의 패망(34:1-45:5)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들(46:1-51:64)

: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제달과 하술, 엘람, 바벨론

예루살렘의 멸망(52:1-34)

제 1 과

예레미야(1) 부름받은 자

찬 송 / 355장
읽을 말씀 / 1:1-6:30
공부할 말씀 / 1:4-10

먼저 읽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명과 환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를 보여주심으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 했던 신부 이스라엘이 이유없이 불의하여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2장).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 매춘행위라고 부르십니다(3장). 이 매춘행위의 선두에는 타락한 지도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5장).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일로 부름받은 예레미야의 마음은 매우 힘겨웠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부름받음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교훈을 나누어 봅시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시기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5절)
2.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6절)
3. 예레미야의 소극적인 반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네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해야 할 것' 두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두가지로 나누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7절, 8절상반절).
4.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8절 하반절)
5.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레미야를 친히 세우시고 보내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여 주십니까?(9절)
6.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열방 만국위에 세우신다고 하시면서 그가 감당할 사명을 어떻게 묘사하십니까?(10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다급하게, 혹은 뜻없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오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1)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과정으로 부르셨습니까? 2) 지금 내가 감당하는 사명(꼭 성직이 아니더라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3) 그 사명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4) 나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구체적인 과정들을 차근차근 되짚어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했습니다. 나도 혹시 어떤 구체적인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세우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 내가 최근, 혹은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으나 주저하고 것은 어떤 것입니까? 2) 내가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하면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3.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세우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나는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위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 2 과

예레미야(2) 거짓 신앙

찬 송 / 518장
읽을 말씀 / 7:1-13:27
공부할 말씀 / 7:1-15

먼저 읽기

유다 백성의 거짓된 신앙에 대한 고발이 계속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 예언되었으나(7장) 그들의 패역은 계속됩니다. 이에따라 예레미야는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8:18-9:2).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자랑하는 할례도 무의미한 징표에 불과할 뿐입니다(9:25-26). 예레미야는 다시한번 힘을 내어 유다백성이 섬기는 우상들의 무능함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대조시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합니다(10장). 그러나 이제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해치고자 합니다(11:18-23). 급기야 예레미야는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12장). 오늘은 유다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거짓된 성전신앙에 대하여 묵상하고 나누어 봅시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느 장소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까?(2절)
2. 유다백성들이 믿고 있던 거짓된 성전신앙은 무엇입니까?(4절, 8-10절)
3.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집(성전)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무엇입니까?(3절, 5-7절)
4. 거짓된 성전신앙에서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십니까?(13절, 15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한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블레셋과 전쟁하는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법계를 앞세우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한 것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그러나 법계는 빼앗겼고, 이스라엘은 패한 것처럼, 훗날 유다 백성들이 믿고 있던 성전은 파괴되었고, 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오류나 착각이 없을까요? “내가 목사인 한, 내가 장로인 한, 내가 무슨 무슨 직분을 감당하는 한, 내가 무슨 교회 교인인 한, 내가 무슨 무슨 일을 하고 있는 한 나는 구원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2. 충현교회는 건물이 아름답고 웅장하기로 유명합니다. 이에따라 우리 속에는 이런 예배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로 인해 ‘자기 만족’에 빠지는 일이 은근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3.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 중의 하나는 ‘그 백성이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입니다(13절).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 별 문제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작 매일의 생활 속에서 내 기도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제 3 과

예레미야(3)

신앙의 고전(古典)

찬 송 / 383장

읽을 말씀 / 14:1-20:18

공부할 말씀 / 17:5-11

먼저 읽기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의 삶을 매우 특별하게 인도하심으로 그의 삶 자체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먼저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 것을 명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을 보이십니다(16:1-4). 또한 잔치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6:8-9).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케 하심으로 그 곳에서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18:1-17). 토지장이에게 오지병을 사서 깨뜨리게 하심으로 심판을 예고 하십니다(19:1-13). 이 연속되는 심판의 예언으로 급기야 예레미야는 투옥됩니다. 이러한 일련을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는 심각한 내적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여호와에 대한 찬양(20:11-13)과 자기 연민(20:14-18) 사이를 오갑니다. 오늘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신명기적 주제인 '축복과 저주의 계명'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저주를 받을 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5절)
2. 그런 사람은 무엇에 비유되며 그 사람의 결국은 어떻습니까?(6절)
3. 복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7절)
4. 그런 사람은 무엇에 비유되며 그 사람의 결국은 어떻습니까?(8절)
5.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묘사하십니까?(9절)
6.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불의로 치부하는 자가 결국 망하게 되는(11절) 이유는 무엇입니까?(10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우리들은 '누구와 가까우냐'에 따라 힘이 있고 없음이 결정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힘을 위해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을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1절). 세상에는 이렇게 권력 지향적인 사람과 하나님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1) 최근에 사람을 믿었다가 낭패나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 해 보십시오. 2) 혹은 사람이 나 환경 믿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결과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 해 보십시오.

2. 사람의 마음은 그야말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좋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당신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합니까? 2) 10-11절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 / 롬 12:19, 벰전 2:23

제 4 과

예레미야(4)

흔느 목자 의로운 왕

찬 송 / 442장

읽을 말씀 / 21:1-25:30

공부할 말씀 / 23:1-6

먼저 읽기

이제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의 침략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합니다. 이 때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을 위시한 이방 세력에 의존하여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투항할 것을 권하는 예레미야를 투옥시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다급해지자 그는 다시 예레미야를 불러 도움을 청하지만, 예레미야의 권고는 한결같았습니다. 항복을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악한 왕들에 대한 심판 곧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등에 대하여(22장), 그리고 거짓선지자들에 대하여(23장) 심판의 예언을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묘사되는 이 심판은 결국 바벨론과 열국에 까지 미칠 것입니다(25장). 오늘은 이러한 무서운 예언의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남기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묵상하십시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화' 를 선언하십니까?(1절)
2. 이 목자들의 악행은 무엇이었습니까?(2절)
3. 하나님께서는 흠어졌던 양무리들을 위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3절 상,중반절, 4절 상반절)
4. 하나님께서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실 경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3절 하반절, 4절 중,하반절)
5.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5절)
6.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6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세상은 목자(지도자 혹은 인도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는 양들을 무너뜨리고 홀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목자는 양들을 세우고 아름답게 양육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종류에서건(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목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1) 나는 어떤 목자(지도자 혹은 인도자)입니까? 2) 내가 좋은 목자가 못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어떻게 해야 좋은 목자가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2. 오늘 본문에 따르면 무너뜨리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이나, 홀어진 양무리를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신다는 사실 앞에서 '내가 감당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 참 목자요, 참 지도자이신 예수님(한 의로운 가지, 우리의 의: 5-6절)을 묵상하면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조 - 막 1:35, 요 13:1, 빌 2:5-11 등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5 과

천국일꾼

찬 송 / 378장

암송할 말씀 / 마 6:33

1. 천국일꾼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이야기 해 봅시다.

마 6:33을 읽으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 그리스도인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마 6:31, 32 참조)

고전 4:1, 2을 읽으십시오.

4: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4: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4.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여김을 받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5.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롬 1:16, 골 1:26, 27)

6. 바울 사도는 2절의 말씀을 통해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마무리 하면서

7. 오늘 공부한 말씀들을 정리해 본다면 천국일꾼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8. 그리고 당신이 천국일꾼으로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천국일꾼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